

美中 갈등완화·관세협상 조짐… “코스피 4000시대 온다”

코스피 3800선도 돌파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 58.95%
美, 中 100%추가관세 사실상 철회
APEC서 트럼프-시진핑 회담 등
국내 증시서 심리적 호재로 작용
“기업 지배구조 등 개혁도 필요”

“와우~사천피(코스피 4000포인트)는 가뿐할 듯요”, “추매(추가매수)하고 싶은데 조정 오는 것도 아쉽고 안 오는 것도 아쉽다”, “코스피200 ETF 지금 들어가도 될까.”

코스피가 20일 3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자 국내 주식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잇따랐다.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 상승세에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흥분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코스피에 불이 붙었다. 인공지능(AI) 수요로 촉발된 반도체 경기 회복과 이달 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미·중 무역 갈등, 한·미 관세 협상) 조짐을 보이면서다. 이젠 ‘최고치’라는 수식어가 식상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ChatGpt로 생성한 ‘장중 코스피 3800 돌파에 환호하는 투자자들’

◆‘4000피’ 코앞

코스피는 이날까지 올들어 58.95% 올랐다. 월별 상승폭을 보면 지수가 3000선으로 올라서던 6월에 13.86% 올라 월간 상승폭이 가장 컸다. 7월엔 5.66%로 상승폭이 줄고, 8월엔 1.83% 하락했다. 코스피는 9월 들어 다시 상승하며 한달간 7.39% 올랐고, 10월 들어서는 이날까지 벌써 11.39%나 올랐다.

이날 코스피의 불을 지핀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밝히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예고했던 ‘대중 100% 추가 관세’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일정을 재확인한 것도 투자심리를 안정시켰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갈등 완화 기대를 자극하며 국내 증시에 심리적 호재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 기대감을 낳고 있다.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대부분의 쟁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코스피 랠리를 이끌고 있다. 최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8일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 1000원, 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이동)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에 나와 세법개정안에서 35%로 책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증권가는 이번 주 있을 빅 이벤트들이 코스피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한·미 협상 결과뿐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 2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도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다.

◆구조적 강세장의 조건은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적 발언으로 일시 진정됐지만, 양국 간 긴장은 여전하다”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구조적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구조적 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거시 환경의 순풍만으론 기업가치의 지속적 상승(밸류업)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상승을 넘어서는 질적·구조적 도약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 수준, 공매도 정책의 잦은 변경 등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외국인 자금이 단기 유입에 그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려면 이런 근본 요인을 바로잡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대한 믿음도 약하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디딤펀드 설정액 2000억… 수익률 12.5%

금융투자협회, 출시 1년 성과

상위 10개 펀드 평균수익률 16.5%

퇴직연금 전용 자산배분형 상품 ‘디딤펀드’가 출시 1년을 맞았다. 높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완만한 수익 흐름을 유지하며 설정 규모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9월 25개 자산운용사가 공동 출시한 디딤펀드의 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상위 10개 펀드의 평균수익률은 16.5%, 전체 평균은 12.5%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8.8%에서 +31.9%, S&P500은 -2.9%에서 +15.8% 범위로 등락했다. 금투협은 “디딤펀드가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제어하며 우상향 흐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25개 펀드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으며, 24개 펀드가 원리금보장형 상

품의 평균수익률(3.67%)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18개 펀드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했다. 전체 펀드 중 12개는 월간 수익률 기준 상위 10위권에 7회 이상 진입해 운용 성과의 일관성을 보였다.

디딤펀드 설정원본은 1년 새 1477억원이 새로 유입되며 227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개인 중심의 DC·IRP 계좌 외에 법인자금 약 280억원이 새로 들어왔다. 금투협은 “디딤펀드의 자산배분 구조와 운용성과가 법인의 자금 관리 수요에 부합하면서 투자 기반이 다변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업권별 판매 비중은 증권사 77%, 은행 15%, 보험 6%, 기타 2%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은행(7%→15%), 보험(3%→6%) 비중이 늘며 판매채널이 확대됐다. 지난 5월에는 디폴트옵션에 첫 편입사례가 발생했다. 향후 트랙레코드가 쌓이면 성과 우수 펀드를 중

심으로 추가 편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디딤펀드는 주식 편입 한도를 50%, 투자부적격채권을 30%로 제한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전액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운용성향에 따라 적립금을 배분할 수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한도(70%) 내에서 자산배분을 보완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수적 투자자는 디딤펀드 50%와 원리금보장형 상품 50%, 중도적 투자자는 디딤펀드 100%, 적극적 투자자는 디딤펀드 30%와 실적배당형 상품 70%를 조합할 수 있다.

이한테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디딤펀드는 연기금 운용방식에 기반한 자산배분형 연금투자 모델로, 퇴직연금 시장의 분산투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성과 축적과 디폴트옵션 확대를 통해 장기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왼쪽부터)가브리엘 림(Gabriel Lim) 세비오라 그룹(Seviora Holdings) 대표와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 추엔야우(En Yaw Chue) 아젤리아 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최고투자책임자(CIO)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싱가포르 아젤리아 등과 맞손

대체투자 전문성 기반 상품 공급

삼성증권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계열의 세비오라 그룹(Seviora Holdings)과 세비오라 그룹 산하 사모펀드(PE) 자산운용사인 아젤리아(Azalea Investment Management) 등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젤리아의 대체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투자 상품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규 상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국내 기관 및 고액 자산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마섹 산하 운용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격의 세비오라는 테마섹의 100% 자회사로, 지난 9월 1일 취임한 가브리엘 림(Gabriel Lim) 대표가 맡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 차관, 리센룽 싱가포르 전 총리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인 림 대표는 “삼성증권과의 협력은 한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에서 가장 각광 받는 전략을 직접 제공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테마섹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젤리아 자산운용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추엔야우(En Yaw Chue) 사장은 “삼성증권과 협력해 한국 내 입지를 강화하고, 프라이빗 마켓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은 혁신적이고 투자자 중심적인 솔루션을 통해 프라이빗 마켓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양사의 공동의 지를 잘 보여 준다”고 전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이번 협력은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공동투자 및 세컨더리 전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모펀드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하나증권, 외국인 현지계좌로 국내주식 매매

‘외국인통합계좌’ 첫 거래 성공

하나증권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최근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한 첫 사례이다. 기존에는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한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쓰는 현지 증권사를 통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해졌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의 유력 증권사인 엠퍼러증권을 외국인통합계좌 파트너로 유치하고 최근 첫 거래까지 성사시키며,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거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하나금융그룹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이다. 앞서 지난 5월 하나증권은 하나은행과 협업을 해외주식 매매 전용 외화보통예금 상품인 ‘하나 해외주식투자전용통장’을 함께 선보였다. 별도의 외화이체 없이 하나은행 외화계좌에 보유 중인 달러로 하나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 투자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허정윤 기자